

## 시즈쿠이시 YU-YU 팜의 야부사메 체험과 호스 트레킹

시즈쿠이시 YU-YU 팜은 시즈쿠이시초에서 유일하게 승마와 호스 트레킹(야외 승마)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과거 이와테현의 농촌에서 말은 농사와 이동 수단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시즈쿠이시 지역의 농가는 전형적인 ‘마가리야(L 자형 주택)’ 형식으로 주요 거주 공간 옆에는 말을 위한 마구간 건물과 흙바닥 작업장이 병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혹독한 겨울에도 말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YU-YU 팜에서는 이렇게 말을 아껴왔던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는 야부사메(유적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부사메는 달리는 말에 탄 기수가 나무 표적에 화살을 쏘는 고식 궁술로 완전 초보자라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농장주가 야부사메 대회의 경험을 살려 지도하고 있습니다. 4 세기경에는 무장이 말 위에서 활을 사용해 싸우게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야부사메는 6 세기경에 무사들이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하는 의식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마쿠라 시대(1185년~1333년)에 이르러 야부사메는 무사의 정신력과 신앙심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지며 신사에서만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야부사메는 오곡풍요(농작물이 풍년이 들도록 기원), 만민식재(사람들의 질병 치유 등을 기원)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매년 일본의 주요 신사에서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숙련된 사수들이 행하는 야부사메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야부사메용 2.2m 활로 화살을 쏘려면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말을 타고서 화살을 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장에는 다양한 크기와 기질의 말들이 있어 손님의 체격에 맞는 말을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질주하는 말을 타고 야부사메를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술과 승마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천천히 걷는 말을 타고서 활을 쏩니다.

승마를 더 오래 즐기고 싶으신 분께는 YU-YU 팜의 가이드가 시즈쿠이시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 속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아이나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심하고 승마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천 시에도 지붕이 있는 공간 내에서 야부사메 연습과 승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토끼, 닭 등의 가축도 사육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입장은 무료이지만, 야부사메 등의 승마 체험은 유료이므로 사전에 예약하시기를 추천합니다.